

총장-뉴스레터 – 89 (2024-9-13)

아간의 도둑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1)

여리고 성이 서 있던 땅이 진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왕상 16:34 에는 여리고에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이라는 찬란한 전과 위에 그림자가 드리운다.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권리를 아간 한 사람이 침해했는데도, 이 때문에 하나님 백성 전체가 벌받게 된다. 공동체는 개인에 대해 책임지고 개인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들에게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사소한 일에서까지 인정한 경우에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이의 경우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에 해당되므로 여기서는 전리품 규정이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된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 (7:2-5)

요단 평원의 여리고에 뒤이어 다음에 정복할 목표로 이스라엘은 산지 성읍인 아이를 주목한다. 아이는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20 마일 거리에 있었고, 아이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2 마일 가면 야곱의 사다리 꿈과 관련이 있는 베델이 있었다. 두 도시는 모두 한 통치자 밑에 있었거나 이스라엘에 대해 동맹을 맺고 있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성읍은 여리고 와는 달리 소규모 병력으로도 넉넉히 정복할 수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패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승리의 확신에서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여기서 입증되는 바는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 계명에 대한 복종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에 대하여는 수 1:8 에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다.

여호수아의 참회기도 (7:6-15)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이스라엘의 이름의 명예와 연결시키신다. 바로 이 점에 여호수아가 호소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가 그랬듯이 (출 32:11-14)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반항하는 백성이 보통 그러하듯이 (출 24:1) 탄식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참회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던지신다. 하나님은 진멸하게 하신 전리품(바친 물건) 곧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유보해 두신 것(7:17-19)에 이스라엘이 손을 댔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달렸는데, 이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스스로 진멸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든지 제비를 뽑든지 범죄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백성은 예배를 준비할 때 하듯이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에 대해 속죄하려면, 공적으로 자복하게 하고 잘못된 상황을 제거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아간을 돌로 칩 (7:22-26)

고라의 무리에게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형벌은 가족과 재산에까지 미친다. 아간이 범행한 결과가 온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간을 돌로 친다. 돌무더기는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경고의 표로 쓰인다. 26 절에서 아골은 '불행'을 의미하는데, 여호수아는 25 절에서 이와 유사한 히브리어 동사 '아카르: 괴롭게 하다'를 써서 아간의 처벌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생각하기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의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자신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고 자신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저 이스라엘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만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 교회에 영광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